

‘책으로 가능한 모든 활동’ 꿈꾸는 작은 책방

아시아문화전당 인근 문 연 ‘책과 생활’

문화전당 근무했던 3인 퇴직후 오픈
인문·문화예술 서적 위주 1천종 구비
책과 결합한 이벤트·소모임 등 준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 문을 연 작은 서점 ‘책과 생활’은 책으로 가능한 모든 활동을 꿈꾸는 공간이다.

을 초 광주시 광산구에 생긴 작은 서점 ‘숨’에 갔을 때 주인장이 말했다. “기자님 회사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곳에도 작은 서점이 생기면 좋겠다. 광주 곳곳에 작은 책방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고 그 말처럼 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맞은편, 광주 영상복합문화관 옆 골목에 작은 서점이 문을 열었다.

입소문 난 핸드드립 커피 전문점 ‘무등산’ 바로 옆 건물 2층에 지난 5월 12일 오픈한 ‘책과 생활’이다.

7일 찾아가 12평 규모의 서점은 ‘흰색’이 콘셉트이다. 하얗게 페인트칠 한 벽과 철제 책장, 의자, 진열대 등이 모두 흰색이다. 서점에서 눈에 띄는 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행사 포스터들. 이젠 서점 주인과도 관계가 있다. ‘책과 생활’은 세 사람이 공동 운영한다. 나이도, 성별도, 하는 일도 다른 그들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일하며 인연을 맺었다.

서점에서 만난 신현창(45)씨는 서울 출판사에 다니다 2013년 전당 예술극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광주에 내려왔다.

“실은 광주에 막 내려왔을 때부터 서점을 해볼까하는 생각을 했어요. 전당 부근 이곳 저곳을 다니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출판사에 근무했던 터라 책과도 친숙하구요. 그러다 지



왼쪽부터 ‘책과 생활’ 공동 운영자 배기애, 신현창, 한정훈씨

난해 8월 전당을 그만 두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갈까 생각도 했죠. 전당에 근무한 지 1년 좀 지난 어느날부터 광주라는 도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서점을 한번 해보자 했죠.”

비슷한 시기에 전당을 그만 둔 서울 출신 한정훈(36) 디자이너와 광주 출신 배기애(33)씨가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보자”며 의기투합했다. 양립동, 대인시장, 광주극장 등 시내 이곳저곳을 둘러본 이들은 지난해 12월말 동창회 사무실이었던 현재의 공간을 발견했다. 이후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모든 인테리어를 직접 했다.

후보작들을 제치고 서점 이름은 ‘책과 생활’로 정했다. ‘인문예술서점, 그리고

책으로 가능한 모든 활동’이 지향점이다.

“생활, 책을 매개로 다양한 삶이 있는 행동을 해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책이 갖고 있는 매체적 특성을 활용해 여러 장르와 결합할 수 있는 다양성에 무게를 뒀구요. 또 미약하나마 지역 출판문화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 책 읽는 이들과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희 모토는 ‘책+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양한 것들을 책과 결합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배기애씨가 식물을 참 좋아하는데 ‘식물’을 소재로 한 책 소개, 공간 구성, 프로그램 기획 등을 해 보는 식이죠.”

신씨는 “우리가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책과 엮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점에 구비된 책은 1000종 1500여권이다. 출판사와 직거래를 하고 위탁판매도 진행하고 있다. 신씨가 현실문화와 글향아리에 근무했던 터라 책 수급은 조금 수월한 편이었다. ‘작은 서점’은 갖출 수 있는 책이 한정돼 ‘꽃한 책’을 보면 주인들의 취향을 알 수 있다. ‘책과 생활’은 인

문, 문화예술, 사회 서적을 중심으로 책을 갖췄다. 또 한강 작가의 다양한 소설 등 문학 작품과 출판사 이야기를 다룬 일본 만화 ‘중쇄를 찍자’가 눈에 띈다. 양혜규, 박불룡 작가의 책 등 다양한 예술 관련 서적도 놓여 있다. 한정훈 디자이너는 책 자체가 아름답고 완성도가 높거나, 아이디어 돋보이는 서적을 좋아한다. 다양한 팸플릿과 소식지, 자료집 등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출판물도 많다.

“이슈가 생기면 그와 관련된 다양한 출판물을 구비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여성주의’가 이슈라면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책뿐 아니라 학회지 등 다양한 자료를 갖추는 겁니다. 책 뿐 아니라 전단지, 팸플릿, 잡지는 물론이고 주제와 관련된 ‘사물’도 수집하는 거죠. 일종의 아카이빙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과 생활’은 앞으로 책과 결합한 소소한 이벤트와 소모임도 꾸릴 예정이다.

“개업 기념으로 책을 사주는 사람이 많아 이번달 운영비는 마련했습니다.(웃음) 하지만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2년 하고 문을 닫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최근 서점이 유행이긴하지만 서울에서도 문닫는 곳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책을 한 권 산 후 서점을 나오면서 입을 거리 풍성한 ‘건축신문’ 등 무가지 몇개를 챙겼다. 유쾌하기로 소문난 북스피어 출판사 ‘르 지라시’는 읽다 보면 웃음이 절로 난다.

화~금(낮12시~오후 8시), 토~일(오후1시~6시) 책방을 열며 월요일은 쉰다. 문의 070-8639-9231.

/김미가 기자 mekim@kwangju.co.kr

‘5인의 포트폴리오’전

강남구·권진용·이민·이올배·조근호...9~15일 무등갤러리



강남구 작 ‘석류’

광주, 서울, 여수 등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5명이 한자리에 뭉쳤다. 강남구, 권진용, 이민, 이올배, 조근호 작가가 ‘5인의 Portfolio’전을 무등갤러리에서 9일부터 15일까지 연다.

강남구 작가는 여백의 미와 사실적이고 생생한 표현이 돋보인다. 전시에 출품한 작품 ‘석류’, ‘매화’, ‘파도’ 등은 일상 속 소재들을 충실하게 재현해 편안한 느낌을 전해준다.

여수미협 지부장을 맡고 있는 권진용 작가는 꽃 등 아름다운 자연 소재를 화려한 색채로 묘사한다. 작품 ‘맨드라미’ 붉은 꽃잎과 몽환적인 보랏빛 배경이 인상적이다.

이민 작가는 서울과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행을 하면서 만난 오래된 풍경들을 그린다. ‘해안도로 어시장-목포’는 건물들을 판화적인 느낌으로 담백하고 독특하게 풀어냈다.

또 여수에서 활동하는 이올배 작가는 꽃과 새가 어울리는 유토피아적인 삶을 보여준다. 꽃과 나무, 새, 나비, 물고기 등이 등장하는 작품 ‘봄’은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한다.

간결한 그림체를 통해 도시와 자연 공존을 표현하는 광주 조근호 작가는 ‘도시의 창’을 출품한다. 건조한 도시 풍경 속에 자유를 상징하는 바다 등을 배치했다. 문의 062-236-25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캔버스에 활짝 핀 꽃중의 꽃



▶‘모란’

최성배 작가 개인전...10~16일 은암미술관

꽃으로 꽃을 피워내는 최성배 작가가 10일부터 16일까지 은암미술관에서 개인전 ‘화중화(花中花)’를 연다.

목포 출신 최 작가는 40여년 간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다 최근 퇴직했다. 교사 생활 틈틈이 화가 활동을 병행했다. 1996년 첫번째 개인전 이후 주로 ‘꽃’을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는 화려하고 강렬한 색채보다는 흰색 꽃을 주로 소재로 사용한다.

이번 전시에서도 ‘백모란’ 등 평소 즐겨 그리는 꽃 작품을 선보인다. 햇볕을 한껏 머금은 모란 꽃잎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소박하고 순수한 매력을 전달한다. 또한 새가 등장하는 작품을 처음 선보인다. 오랜 세월 걸어 온 교직 여정을 접고 자유인으로서, 또 화가로서 새 삶을 준비하고 있는 자신을 빚었다.

최 작가는 목우회, 전라남도 미술대전, 무등 미술대전, 단원 미술대전 등에서 수상했다. 문의 062-231-529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면선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 400여점 전시

6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 축제

접수기간 2016. 6. 7(화) ~ 6. 10(금)

개요 | 작품 공모

- 대상 : 전국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 시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결과발표 : 2016년 6월 23일(목)
-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 주제 : 제한 없음

참가

- 참가비 : 7,000원(20명 이상 단체할인 4,000원)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금남로 27가)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 그리기축제 담당자 앞

유의사항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사항은 일반적인 대회요강에 준함.

문의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주최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 목포시 · 나주시